

봉축연등 백령도 다시 밝힌다

태고종 종교편향 딛고 통일기원 법회 심청각 위령제·군부대 위문품 전달도

연등을 다는 장병들의 손길이 감격에 겨운 떨림으로 한층 조심스럽다. 세한 바닷바람 때론은 아날 것이다. 백령도. 멀리 북한이 보이는 서해 최북단 이곳은 기독교도인 공무원들의 방해로 지난해 연등조차 달지 못하고 불자들이 쫓겨나 시끄러운 곳.

인구의 95%가 기독교인들로 이뤄져 무(無佛)의 땅과도 같았던 백령도에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통일연등이 환하게 밝혀졌다.

태고종 인천총무원(원장 대은) 산

하 스님들과 신도, 호국 육용사 군불자 4백여명은 4월29일 북한의 장산곶과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안보절경지역 백령도에 연등을 달고 봉축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자비의 통일등이 들어 줄 것을 염원했다.

불자들은 또한 기독교 일색인 백령도에 연등 밝힘을 계기로 불심의 색이 튼튼하게 돌아나 큰 나무로 자라줄 것도 기원했다.

지난해 관공서가 노골적으로 봉축행사를 방해하자 인천총무원장 대은스님을 비롯하여 교계 종교편



백령도 불자장병들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평화통일을 발원한 봉축기원 법회.

향대책위는 웅진군청과 인천시 등 각계를 찾아다니며 시정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날 공식적으로 연등을 밝힐 수 있게 된 것.

통일연등을 달고나서 합장기도한 해병대 김 모 병장은 "올해는 웃으

면서 봉축법회를 갖고, 아름다운 연등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우리민족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분단의 고착화와 정신의 이질화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통일을 이루자"고 다부지게 말했다.

이날 국민화합 통일기원 점등법회를 주도하고 법문도 한 대은스님은 "50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을 맞게 되는 만큼 백령도에 밝혀진 자비의 등에 모아진 기원으로, 통일이 앞당겨지고 북녘동포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감개어린 응시로 말했다.

점등법회에 이어 불자들은 30일 북한의 장산곶이 육안으로 보이는 인당수 앞 심청각에서 민족통일 기원기도 및 묘사 심청 위령제도 봉행했다.

한편 인천총무원은 군부대에 TV 3대, 떡, 격려금과 함께 태고종 총무원에서 마련한 불자장병 위문품 300 박스를 전달했다.

백령도=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정선 태경원 광산개발로 '몸살'

"소음·생태계 파괴중지" 서명운동 전개

강원도 정선군 북면에 소재한 한 대리석광산의 공사로 인근 사람과 주민들이 공해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태경원(주지 동선)은 정선대리석 광산이 매봉산(해발 967.4m)을 무함히 파괴해 산세와 경관, 보전일지, 계곡, 하천을 파괴·오염시키고 24시간 작업 장비 및 화물차의 굉음으로 수행 및 신환경이 심각

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1일부터 '정선대리석 광산개발중지'를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주지 동선스님은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산 개발로 인해 동강의 지류가 되는 뱃물천이 오염되고 있으며, 밤낮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최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광산의 개발중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녹색연합과 동해시 백두대간보존회, 원주환경운동연합도 자체 조사를 통해 정선대리석광산의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광산 개발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선군도 정선대리석광산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중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웅진 몽운사 추정사지 수장위기

심청전 무대...맹건설 추진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을 바친 사찰 몽운사로 추정되는 중화동 절골의 사지가 수장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웅진군 백령면 연화리 일대에 1백42억원을 들여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식수 전용댐은 높이 25m, 폭 130m로 총 저수용량 23만1천 톤 규모.

수물지인 절골 사찰터는 2000

평으로 현재도 곳곳에서 기왓장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다. 주변에는 용궁에서 돌아온 심청을 태운 연꽃이 떠올랐다는 연봉바위와 심청이 연방을 떨어뜨리고 갔다는 연화리 연못 등이 현존해 지역주민들은 이곳 사지를 몽운사 터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 불자인 몽운거사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지 발굴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공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선각종 해인사 점안식

대한불교선각종(총무원장 중앙)은 4월30일 광주 두암동에 위치한 해인사(주지 명인)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정암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는 일체의 선한 행과 진리를 중생에게 전하는 가르침"이라며 중도들의 화합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안국사 신도회가 1일부터 동의대 학교 정문과 본관입구에서 자유로운 사찰 출입 보장을 위한 시위를 계속한 가운데 학교측과 안국사는 3일 대포 8명을 선임, 합의점을 찾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회의를 통해 안국사를 참배하는 사부대중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과 시위로 훼손된 동의대의 명예회복을 위해 안국사 신도들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 무리없이 10장, 1학기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교직원 수종의 통행증 40여장 지급, 초파일 학교 전면 개방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남방의례와 우리나라 전통의례로 진행된 이날 이운식에는 스리랑카 불치사 유실라완사무레테 스님과 열반종 원로의원 덕암스님, 상대석 신도회장(박재우)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의우정사에는 현재 세계 각 나라의 불상 200여구가 모셔져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동의대 사찰출입 통제 완화

부산 동의대학교의 주자장 유료화 실시에 따라 교내에 위치한 사찰 출입에 제한을 받아온 안국사(주지 수봉)가 3일 동의대와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미안마불상 봉안

미안마(총무원장 김해근)는 미안마에서 모셔온 부처님 이운식을 4월 30일 경기도 용인 의우정사에서 거행했다(사진).

"자연과 이웃을 내몸처럼"

광주 BBS 서용스님 초청법회

광주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4월27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개국 5주년 기념 서용대중사 초청대법회(사진)를 개최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천은스님,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 화엄사 주지 종걸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김두원 회장, 광주광역시 이윤자 정무부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고흥출생 백양사 방장 서용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인이 대립과 투쟁으로 반목해 온 인류에게 화해와 평화를 약속할 수 있으며, 전도않았던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고 당부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화쟁사상으로 사회갈등 치유

서울·경주서 원효스님 1314주기 추모제

원효성사 열반 1314주기를 맞아 서울 효창공원과 경주 분황사에서 추모대제가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3일 서울 효창공원에서 "1314주년 원효성사 열반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원효종 주관으로 열린 추모제에는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총무원장, 무진 원효종 총무원장, 흥과 관음종 총무원장, 학봉 조동종 총무원장, 내팔 소암부 주지대승정진과 립포체, 김명태 전 동국대 불교대학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원효성사의 뜻을 기렸다.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은 인곡 부회장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원효성사의 원융화합의 뜻을 이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화두로 삼아 사회적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겨레 문화재단(이사장 성태)과 (사)이차돈·원효양성사(이사장 해인)도 같은 날 경주 분황사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추모제를 봉행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더 김희균 회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향(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이 향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작용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순환계를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리보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들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없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배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개당되는 증상(○) 이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증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대 뒷면이 검고 딱딱하다.
- 11 배나 복부 근력이 많이 썩어 있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 15 전신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통을 당한다.

향비 사용 시 주의사항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액자만 걸고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 괘·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특수금속판에 직접 새겨도안 조성
- ※ 위에 유리도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45cmx45c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수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경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들이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기념선물·집들이 선물
- 연일선물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산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팔괘 액자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